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배은숙¹ · 강혜승² · 이소영³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²,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³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Identity and Depression among Vietnamese Students

Bae, Eun Sook¹ · Kang, Hye Seung² · Lee, So Young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imhae College, Gimhae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Gumi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Gumi,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career identity on depression among the Vietnamese students enrolled in a language course in Korea.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get answers of 225 Vietnamese students enrolled in the language course in a college in Busan.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8.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WIN 20.0 and Amos 18.0 program. **Results:** Acculturative stress was affected by satisfaction with life ($\beta = -.43, p < .001$) and career identity ($\beta = -.45, p < .001$). Furthermore, depression was affected by acculturative stress ($\beta = .49, p < .001$) and career identity ($\beta = -.25, p < .001$), but depression was not affected by the satisfaction with life ($\beta = -.15, p = .029$).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between two exogenous variables (satisfaction with life and career identity) and depression was proved.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Vietnamese students enrolled in the language course.

Key Words: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on; Occupations; Satisfaction; Vietnames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의 많은 대학이 국제화 교육 활성화 및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

다[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학위와 연수과정을 포함한 유학생이 2012년 84,711명에서 2017년 135,087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어학연수생은 2012년 20,681명에서 2017년 48,20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학위와 연수과정을 포함하여 2012년 3,261명에서 2017년 27,563명으로 지난 5년 사이 유학생 증가율이

주요어: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진로정체감, 생활만족도, 베트남

Corresponding author: Kang, Hye Seung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37 Yaeun-ro, Gumi 39213, Korea.

Tel: +82-54-440-1312, Fax: +82-54-440-1219, E-mail: hskang21@gumi.ac.kr

Received: Aug 17, 2019 / Revised: Feb 24, 2020 / Accepted: Feb 25,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45.2%에 달하여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유학생 집단이 되었으며, 어학연수생의 증가율 또한 2012년 689명에서 2017년 20,977명으로 5년 사이 어학연수생 증가율이 2,944.5%로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2]. 이렇듯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은 정부 및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한류열풍과 한국에 대한 친근한 정서로 인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 학교 부적응, 고국에 대한 향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 외국인 유학생들의 우울은 국내에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나타내게 된다[3]. 이러한 우울은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대부분은 학위과정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베트남 어학연수생은 연수비자로 입국해 한국어 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을 준비하고, 대학 입학 요건인 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학생 비자로 전환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취업이나 진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된다. 이렇게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중국 유학생과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존연구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의 생활만족도는 곧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타국의 유학 생활은 학업 및 진로문제, 언어와 가치관 문제, 교우관계, 향수병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4].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보였고[5], 모국문화와 차이로 인해 문화적응 및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6]. 한편 생활만족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은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7]. 유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유학생들의 생활만족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에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장벽, 익숙하지 않은 문화, 모국 및 현지의 직업세계의 정보 부족 등으로 진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그들은 언어 학습과 동

시에 새로운 문화와 사회시스템을 배우고 적응하면서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게 된다[9,10]. 따라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직업에 관련된 자신의 능력, 흥미 및 목표를 파악하여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가능하게 한다[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우울의 관련성 연구에서 부적 상관이 있음[12]을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의 낮은 진로정체감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심리적 혼란 및 부적응 행동의 심리적,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3-15].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불안,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하여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한다[16].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7]. 외국인 유학생들이 차별이나 언어, 관습,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도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8,19].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베트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20]. 이와 같이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학업 및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진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사회적, 정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겪는 문화적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며, 생활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하여 이들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 파악과 이 문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생활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G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발적인 연구참여자 22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어학연수생이며,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이 1개월 이상 지난 학생
-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대상자 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Hair 등[21]에 의하면 최대우도 추정법에 사용되는 표본의 크기는 20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는 225명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우울 측정은 도구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우울 도구는 본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은 원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한국어 설문지를 완성 후 베트남어로 번역하기 위해 베트남어 전공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번역 후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전문가 2명과 간호학 교수 2명이 도구를 사정 후 베트남 어학연수생 5명에게 예비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22]이 개발하고, Won [2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생활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Won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로 나타났다.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등[24]이 개발하고, Kim과 Kim [2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진로정체감 척도(My Vocational Situation, MV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목표, 흥미, 성격, 재능의 4개 하위요인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역문항은 모두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Kim과 Kim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Sandhu와 Asrabadi [19]가 개발하고, Lee [26]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차별감 8문항, 향수병 4문항, 두려움 4문항, 적대감 5문항, 죄책감 2문항, 문화적 충격 3문항,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 10문항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Lee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6로 나타났다.

4) 우울

본 연구에서는 Burns [27]이 개발한 우울 척도(Burns Depression Checklist, BDC)를 Bae와 Kang [28]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Burns [27]에 의해서 15문항으로 개발되었다가 생각 및 감정 10문항, 신체증상 5문항, 활동

및 대인관계 7문항, 자살충동 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총 25문항으로 수정되었다[29].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아니다' 0점에서 '거의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이 심한 것으로 분석한다. 점수의 분포는 0~5점이 우울 없음, 5~10점이 정상이지만 불행하다고 느낌, 11~25점이 약간 우울, 26~50점이 중간 수준의 우울, 51~75점이 심각한 우울, 76~100점이 극히 심각한 우울로 분류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Bae와 Kang [28]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B광역시 G대학에 소재한 국제어학원 담당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표집이 이루어졌고,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회수된 설문지 234부 중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여 최종 225부(96.2%)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version 20.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하였으며,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정도는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관측변수들의 왜도(skewness)는 절댓값 2 이하, 첨도(kurtosis) 절댓값 7 이하 및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s test로 하였다.
-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인 χ^2/df ,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 연구모형 내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검정을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경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KW-2018-16)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를 받고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대상자에 대한 위협성은 전혀 없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225명으로 남자 118명(52.4%), 여자 107명(47.6%)이며 남자가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21~23세가 39.1%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음주 유·무는 '하지 않는다'가 79.0%로 가장 많았다. 이성 친구 교제 유·무는 '있다'가 61.9%, 한국 체류기간은 3개월 미만이 59.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생활비 지원은 부모님의 도움이 52.0%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부담은 '보통'이 33.3%, 최종학력은 고졸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르바이트 유·무는 '하지 않는다'가 73.4%, 한국어 능력은 '보통'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방법은 베트남어와 한국어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차이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한국체류기간, 생활비 지원, 최종학력, 아르바이트 유·무, 한국어 능력,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상자의 성별, 음주 유·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be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18 (52.4)	3.88±0.77	3.72	2.04±0.72	2.15	1.51±0.44	3.21	1.31±0.48	4.01
	Female	107 (47.6)	3.46±0.91	(<.001)	2.25±0.70	(.033)	1.76±0.69	(.002)	1.63±0.71	(<.001)
Age (year)	18~20 ^a	68 (30.2)	3.83±0.78	3.38	2.12±0.63	0.36	1.58±0.46	5.20	1.45±0.53	0.89
	21~23 ^b	88 (39.1)	3.74±0.89	(.019)	2.10±0.75	(.782)	1.53±0.50	(.002)	1.42±0.58	(.446)
	24~26 ^c	51 (22.7)	3.58±0.84	a > d	2.19±0.78		1.71±0.70	a, b < d	1.48±0.68	
	≥ 27 ^d	18 (8.0)	3.13±0.96		2.26±0.75		2.10±0.83		1.68±0.95	
Drinking	Yes	47 (21.0)	3.53±0.98	1.26	2.38±0.65	2.75	1.82±0.75	2.45	1.60±0.76	1.66
	No	178 (79.0)	3.72±0.83	(.214)	2.08±0.72	(.007)	1.58±0.52	(.015)	1.43±0.58	(.098)
Having someone to date	Yes	139 (61.9)	3.73±0.86	0.93	2.13±0.66	0.19	1.67±0.58	1.25	1.49±0.62	0.82
	No	86 (38.1)	3.61±0.87	(.355)	2.15±0.81	(.851)	1.57±0.56	(.214)	1.42±0.63	(.411)
Length of stay (month)	< 3 ^a	134 (59.6)	3.85±0.75	11.38	2.07±0.70	3.07	1.52±0.49	9.15	1.34±0.47	14.26
	3~< 6 ^b	40 (17.8)	3.77±0.88	(<.001)	2.17±0.71	(.029)	1.55±0.50	(<.001)	1.37±0.47	(<.001)
	6~< 12 ^c	22 (9.8)	3.55±0.92	a, b,	2.08±0.71	a < d	1.87±0.84	a, b < d	1.58±0.79	a, b, c < d
	≥ 12 ^d	29 (12.8)	2.88±0.90	c > d	2.50±0.74		2.07±0.64		2.10±0.89	
Supporting of living expenses	Self ^a	82 (36.3)	3.45±0.93	9.96	2.39±0.64	6.19	1.74±0.56	12.21	1.61±0.72	7.46
	Parents ^b	117 (52.0)	3.97±0.66	(<.001)	1.93±0.71	(<.001)	1.44±0.43	(<.001)	1.27±0.42	(<.001)
	Bank loan ^c	9 (4.0)	2.60±1.26	b > a	2.46±0.76	a > b	2.54±1.17	b < a, c,	1.95±1.05	a, d > b
	Loans to others ^d	4 (1.9)	3.05±0.52	b > c, d	2.05±0.63		1.81±0.52	e	1.79±0.34	
	The rest ^e	13 (5.8)	3.48±1.02		2.43±0.78		2.16±0.83	c > a, b	1.88±0.85	
Burden of living expense	No burden ^a	39 (17.3)	3.89±0.67	1.51	2.07±0.74	2.40	1.54±0.59	3.46	1.32±0.48	3.91
	Little burden ^b	29 (12.9)	3.83±0.93	(.201)	1.86±0.74	(.051)	1.50±0.55	(.009)	1.34±0.60	(.004)
	Neutral ^c	75 (33.3)	3.64±0.82		2.20±0.65		1.60±0.48		1.43±0.56	a < e
	Quite burden ^d	23 (10.2)	3.73±0.66		2.00±0.61		1.49±0.44		1.35±0.53	
	Very burden ^e	59 (26.3)	3.49±1.07		2.32±0.79		1.88±0.73		1.74±0.7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a	9 (4.0)	3.71±0.90	3.25	2.06±0.70	3.04	1.72±0.66	5.55	1.66±0.62	3.29
	High school ^b	167 (74.6)	3.76±0.84	(.041)	2.08±0.69	(.050)	1.56±0.48	(.004)	1.40±0.53	(.039)
	College graduates ^c	48 (21.4)	3.40±0.91	b > c	2.36±0.80		1.87±0.82	b < c	1.64±0.85	
Part-time job	Yes	60 (26.6)	3.33±0.99	3.77	2.42±0.66	3.69	1.83±0.60	3.04	1.74±0.90	4.10
	No	165 (73.4)	3.81±0.78	(<.001)	2.04±0.72	(<.001)	1.56±0.57	(.003)	1.36±0.52	(<.001)
Korean proficiency	Poor ^a	10 (4.4)	1.93±0.99	3.65	2.65±0.99	2.50	2.42±1.06	9.31	1.93±0.99	3.30
	Intermediate ^b	141 (62.7)	1.41±0.58	(.028)	2.10±0.69	(.085)	1.58±0.53	(<.001)	1.41±0.58	(.039)
	Advance ^c	74 (32.9)	1.51±0.62	a < b, c	2.16±0.72		1.63±0.54	a > b, c	1.51±0.62	
Primary language on communication	Only Vietnamese ^a	22 (9.8)	1.99±0.90	6.57	2.54±0.83	4.60	2.27±0.91	15.78	1.99±0.90	9.02
	Vietnamese and Korean ^b	188 (83.6)	1.41±0.56	(.002)	2.11±0.70	(.011)	1.56±0.50	(<.001)	1.41±0.56	(<.001)
	Only Korean ^c	15 (6.7)	1.43±0.64	a < b, c	1.87±0.59	a > b, c	1.57±0.53	a > b, c	1.43±0.64	a > b, c

a, b, c=Scheffé test.

무, 한국체류기간, 생활비 지원, 아르바이트 유·무,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진로정체감은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별, 연령, 음주 유·무, 한국체류기간, 생활비 지원, 최종학력, 아르바이트 유·무, 한국어 능력,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성별, 한국체류기간, 생활비 지원, 생활비 부담, 아르바이트 유·무,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

보다, 한국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보다, 생활비 지원은 본인 부담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경우가 부담 없는 경우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베트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베트남어와 한국어 둘 다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우울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고($r=.69, p<.001$), 진로정체감($r=-.55, p<.001$)과 생활만족도($r=-.56, p<.001$)는 낮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높을수록 생활만족도($r=-.60, p<.001$)와 진로정체감($r=-.59, p<.001$)은 낮았고,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r=.43, p<.001$)은 높게 나타났다.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수 절대값이 .80 이상 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점수는 .43~.69로 분포되어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경로모형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chi^2=338.67$ ($df=129$,

$p=.100$), $\chi^2/df=2.62$ (<3), $GFI=.93$ (≥ 0.90), $AGFI=.92$ (≥ 0.90), $NFI=.90$ (≥ 0.90), $CFI=.93$ (≥ 0.90), $RMSEA=.08$ (≤ 0.08)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경로분석을 위해 만든 모형의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위해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였으며 bootstrapping 검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총 효과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경로 모형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gamma=-.43,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진로정체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와 총 효과($\gamma=-.45, p=.00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57%였다.

둘째,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우울 정도에 대한 직접효과 및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gamma=.49, p=.001$). 진로정체감의 직접효과($\gamma=-.25, p=.001$)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gamma=-.22, p=.001$)로 인한 총 효과($\gamma=-.47, p=.001$)는 통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in the Vietnamese Students (N=225)

Variables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r (p)	r (p)	r (p)	r (p)
Satisfaction with life	1.00			
Career identity	.43 (<.001)	1.00		
Acculturative stress	-.60 (<.001)	-.59 (<.001)	1.00	
Depression	-.56 (<.001)	-.55 (<.001)	.69 (<.001)	1.00

Table 3. Parameter and Significance in Path Model (N=225)

Path effect	B	β	SE	CR	p
Acculturative stress ← Satisfaction with life	-0.34	-.43	.81	-6.44	<.001
Acculturative stress ← Career identity	-0.46	-.45	.80	-6.34	<.001
Depression ← Acculturative stress	0.46	.49	.76	5.34	<.001
Depression ← Career identity	-0.24	-.25	.94	-3.42	<.001
Depression ← Satisfaction with life	-0.11	-.15	.98	-2.18	.029

B=regression weights; β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E=standardized error; CR=critical ratio.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N=225)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MC
Acculturative stress	Satisfaction with life	-.43 (.002)		-.43 (.002)	.57
	Career identity	-.45 (.002)		-.45 (.002)	
Depression	Acculturative stress	.49 (.001)		.49 (.001)	.62
	Career identity	-.25 (.001)	-.22 (.001)	-.47 (.001)	
	Satisfaction with life	-.15 (.060)	-.21 (.004)	-.34 (.004)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 정도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직접효과($\gamma = -.15, p = .06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gamma = -.21, p = .004$)로 인한 총효과($\gamma = -.34, p = .0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활만족도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 직접효과는 없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역할 즉,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이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효과와 더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효과, 진로정체감의 직접·간접효과 및 생활만족도의 간접효과를 통하여 우울은 62%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한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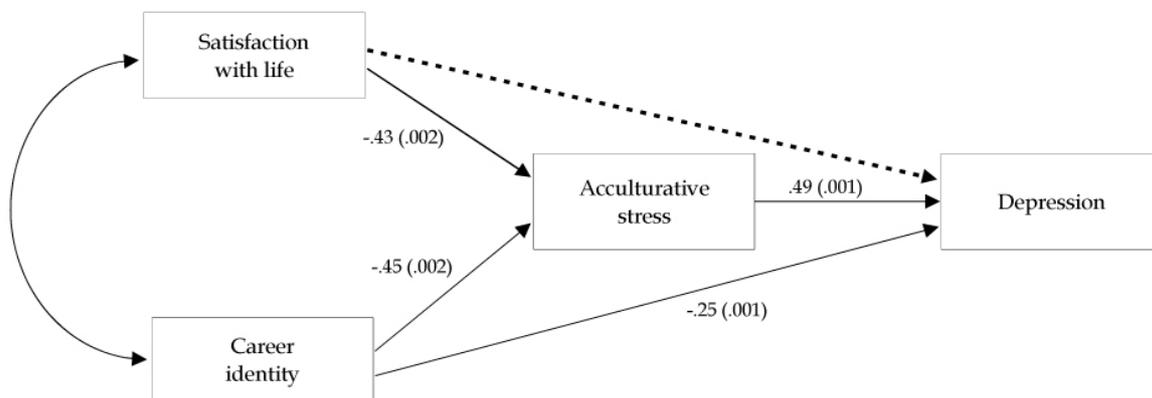
논 의

본 연구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들의 직접 및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파악함으로써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별, 한국체류기간, 생활비 지원, 생활비 부담, 아르바이트 유·무,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우울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3]와 맥락을 같이 하나 건강상태, 거주형태, 가족의 지지에 따라 우울 정도에 차이를 보인 결과[13]와는 일관적이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정도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나[3,13] 본 연구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우울 정도는 중간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기간이 길수록, 혼자 사는 경우에 우울 정도가 더 높았는데[3,13],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9.6%를 차지하고 있었고, 동향 이성 친구가 유학을 같이 오거나 대부분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유로 이성 교제가 61.9%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타국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 많은 이성 교제가 이루어진 결과로 추측된다.

둘째, 생활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활만족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유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는 부적 관계로 나타난 연구결과[5,6]와 유사한 맥락이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13,20] 가족과 모국에 대한 그리움, 외국인이라는 시선이 어학연수생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어학연수생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학의 포괄적인 지원과 동시에 타국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Note: Model fit indices: $\chi^2=338.67, \chi^2/df=2.62, GFI=.93, AGFI=.92, NFI=.90, CFI=.93, SRMR=.05, RMSEA=.08$.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life, career identity and depression.

진로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 유학생 대상의 연구[9], 문화적응과 진로정체감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10]는 다음과 같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학연수 이후 진학이나 취업을 고민하는 유학생에게 적절한 진로지도와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면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학연수생의 현실적 문제인 학비의 해결방안으로 불법체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그들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이들의 취업, 학비 부담으로 인한 진로정체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와 부족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차이로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13,14]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본국을 떠나오자마자 새로운 학업 방법, 대인관계 형성이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따라서 주류 문화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문화적응 전략을 아는 것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은 유학생이 대학생활 초기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 학생을 연결하는 버디(budd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30].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어학연수생에게도 적용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직접 도움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인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와 한국문화체험 쌓기나 대학축제를 통해 타 문화권에 대해 경험하고 관심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우울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 우울 사이에서 매개효과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우울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생활만족도에 따라 우울을 느끼지는 않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우울은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어학연수생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생활만족도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5,6],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관계[3,13,14]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가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 과반수이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보통 수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활비 지원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부담감은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주게 되므로 어학연수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방법을 고려하거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과 우울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 베트남 어학연수생이 진로정체감으로 인해 우울을 느끼게 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우울이 더욱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대학 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9]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한 진로정체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직업 선택의 탐색과정을 거쳐 진로를 선택할 방안과 어학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국인 학생과 동아리 형성을 통하여 한국어가 익숙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 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연구대상자로 한국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연구의 한계성이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과 더 많은 대학교의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체류 기간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생활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생활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금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대부분은 중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어학연수생 대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체류 기간에 따라 생활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이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생, 1년 이상의 어학연수생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생활수준이 다른 대도시와 지방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어학연수생, 아르바이트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Kyung SY, Jang SM.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0;34(2):399-42.
2. Statistics Korea. KOSIS statistics [Internet]. Daejeon: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Statistics Korea; c2012-2017 [cited 2019 Jan 18].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4&conn_path=12
3. Jeong HS. Factors influencing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cused on acculturative stress, academic stress and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7):63-72. <https://doi.org/10.5392/JKCA.2016.16.07.063>
4. Alemu AM, Jason C.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 satisfaction in Kore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017;57:54-64. <https://doi.org/10.1016/j.ijedudev.2017.08.006>
5. Ku GT. A study of the impact of media on cultural adapt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4; 21(1):35-55.
6. Yoon MS, Kim NH. Effects of acculturative and life stress,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8):21-47.
7. Chang CJ.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ving satisfaction of elderly-focused on using social services,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2018;10(2):65-74.
8. Crockett SA, Hays DG.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the career counseling needs of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on U.S. campus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011; 14:65-79. <https://doi.org/10.1002/j.2161-1882.2011.tb00064.x>
9. Lee TH, Kim MJ. Foreign student's career identity's effect to their adaptation in university lif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2016;3(1):71-88.
10. In H. The associations of acculturation and hope with vocational identity among Korean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6;29(3):161-180.
11. Andreas H. Vocational identit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self-evaluations and life and job satisfaction. *Applied Psychology*. 2011;60(4):622-644. <https://doi.org/10.1111/j.1464-0597.2011.00450.x>
12. Kim MJ, Kwon YJ, Kim JK. The mediated effect of depression in a 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meaning in life an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2018;7(2): 109-129.
13. Lee HJ.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12;7(3):129-143.
14. Yoo MR, Choi SY, Kim YM, Han SJ, Yang NY, Kim HK, et al.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320-329.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20>
15. Shaun LH, Alexander JM. Maladaptive perfectionism,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sian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2018;28(2):185-196. <https://doi.org/10.1017/jgc.2016.18>
16. Toshitaka H, Philip GL.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levels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14;42(4):205-217. <https://doi.org/10.1002/j.2161-1912.2014.00055.x>
17. Liu Y, Chen X, Li S, Yu B, Wang Y, Yan H. Path analysis of acculturative stress componen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Stress and Health*. 2016;32(5):524-532. <https://doi.org/10.1002/smi.2658>
18. Iskra S. The role of attachment, travel experiences and english proficiency in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2017; 7(2):188-203. <https://doi.org/10.32674/jis.v7i2.322>
19. Sandhu DS, Asrabadi BR.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1994;75(1):435-448. <https://doi.org/10.2466/pr0.1994.75.1.435>
20. An JW, Lee CW.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7;28(3):157-177. <https://doi.org/10.16881/jss.2017.07.28.3.157>

21. Hair JF, Black WC, Anderson RE, Tatham RL.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5. 899 p.
22. Diener E, Emmons RA, Larsen RJ,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5;49(1): 171-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23. Won HJ. The daily leisure of Korean School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and leisure function [dissertation]. [Eugene]: University of Oregon; 1989. 251 p.
24. Holland JL, Johnston JA, Asama NF.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93;1(1):1-12. <https://doi.org/10.1177/106907279300100102>
25.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311-333.
26. Lee SJ.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The Journal of Yonsei Educational Research*. 1996;9:157-176.
27. Burns D-D. Intimate Connections: the new and clinically tested program for overcoming loneliness developed at the Presbyterian-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Center, 1st ed. New York: William Morrow & Co; 1985. 333 p.
28. Bae ES, Kang HS.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family function, and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4):181-192. <https://doi.org/10.21184/jkeia.2018.6.12.4.181>
29. Morgan JH. Depression measurement instruments: An overview of the top depression rating scales. Preprints 2016, 2016 120083. <https://doi.org/10.20944/preprints201612.0083.v1>
30. Kyun JY. The inquiry of the awarenes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on the 'Buddy progra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1):121-142.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121>